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지방대 생계형 유학생의 생존 전략

정혜민*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방대에 재학 중인 생계형 유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착 및 적응 과정, 아르바이트 경험, 정체성 인식,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였다. 심층면담과 포토보이스 기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계형 유학생들은 학업과 노동을 전략적으로 병행하고 지방에서 대도시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며 한국 내 이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생계형 유학생을 단순한 경제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문화 주체로 재조명하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생계형 유학생, 지방대, 교육 이주, 생존 전략, 이주 네트워크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25)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외국어대 코리아노퐁 연구센터, 한국학, 연구원·한남대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강의전담교수,
bdesign21@naver.com

1. 서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제 교육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한국 정부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하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유학생 수 증가에만 치중하여 이들의 교육의 질과 생활 지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태은 2023).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여 유학생 유치를 주요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오예진 2024). 그 결과 많은 지방대가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유학생이 한국 지방대로 유입되고 있다.¹ 교육부(2025)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25만 3,434명에 달하며 전체 유학생의 약 54%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유학생은 지방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지만 사실상 지방대일수록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지방 노동시장의 한계로 인해 지방대에 입학한 유학생들이 지방 유학을 수도권으로의 단계적 이동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바트첵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 2020).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학생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이주 동기와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본국 가족의 재정 지원 아래 학업에 전념하는 엘리트 유학보다 유학 비용을 직접 조달하기 위해 학업과 노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본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여 유학에 수반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조건에 놓인 유학생을 ‘생계형 유학생’으로 개념화한다(정혜

1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는 학생 충원이 어렵기에 유학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한경비즈니스 2024.10.07; 한국경제 2024.01.30) 유학생 유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유학원,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뉴데일리경제 2018.09.20). 유학생들이 지방대의 어학연수 과정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유학원 추천, 입학 용이성, 경제적 지원, 학위 기회, 해외 유학 경험, 한국어 습득 등이 있다(이민경 2012).

민 2025). 실제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93%가 자비유학생이며(교육부 2025) 이는 본국 가족의 재정 지원 없이 유학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유학생이 많음을 보여준다. 물론 자비유학생 전체가 생계형 유학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중 본국 가족의 지원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여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조건에 놓인 유학생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에게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다.²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대로 유입되는 다수의 유학생은 수도권 명문대 유학생과는 다른 경로를 밟는다. 본국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유학은 학위 취득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전략적 과정이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법무부 2024) 실제로는 더 이른 시기부터 경제적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과 노동의 병행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 장기 거주 가능성, 정체성 형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교육 이주 연구에서도 유학생의 이동이 단순한 학업 목적을 넘어 경제적 필요, 취업 기회, 장기 이주 전략과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King and Raghuram 2013; Macrander 2017).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언어 능력, 학업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세경 2018; 이선미·김영순 2021). 안영진·최병두(2008)는 한국 외국인 유학생 이주가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민경(2012)은 지방대 유학생의 유학 동기가 자국에서의 제한된 기회를 외국 학위로 보완하려는 두 번째 기회의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김도혜·최희정(2019)은 한국 유학 선택 과정에서 초국적 연결망이 핵심적으로 작동함을 언급하며 유학생을 이주 행위자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바트첵게르 투맹

2 국가통계포털(2023, 2024)에 따르면 15세 이상 외국인 중 고졸과 대졸 이상 학력자의 약 71% 이상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24.1%에 달한다. 유학생 비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꼴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노동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수치는 공식 집계된 최소값으로 비공식 노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노동 참여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템베렐·김도혜(2020)는 지방대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비합법 노동이 구조적 결과임을 밝혔고, 김도혜·최희정(2021)은 이들이 한국 체류·귀환·제3국 이주 사이에서 능동적 선택을 하는 행위자임을 강조하였다. 이예지(2021)와 김명광·이윤주(2023)는 각각 시간제 취업 구조의 한계와 졸업 후 비자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장벽을 분석하였다. 최근 박혜란·남은영(2024)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현재의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노동력을 담당하는 이주 학습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 중 지방대 어학연수(D-4) 단계에서 시작되는 초기 유학 과정에서의 생존 전략과 학업 및 노동 병행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 지방대 생계형 유학생들이 유학 초기부터 구사해 온 생존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가 간과해 온 어학연수 단계부터 시작되는 복합적 삶의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지방대 유학생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지방대 생계형 유학생들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공간적·사회적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가?
2. 지방대 생계형 유학생들은 학생과 노동자라는 이중적 위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협상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0세기 후반까지 국제 교육 이주는 주로 가족의 지원을 받는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계층이 서구권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적 지위 상승을 도모하는 수직적 이동(Vertical Mobility)이 지배적이었다. 수직적 이동은 낮은 교육 수준에서 고급 교육 수준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

로의 유학 이동을 포함한다(Gürüz 2011; Teichler 2009; Waters 2012).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유학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1900년에서 2000년 사이 고등교육 등록 학생 수가 5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200배 증가하면서(Schofer and Meyer 2005) 국제 학생 수도 1999/2000년 210만 명에서 2018/2019년 57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Glass and Cruz 2023). 이러한 대중화는 유학생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다양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목적 자체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 연구는 유학생을 교육 수혜자로 개념화하는 데 그쳤으나(이선미·김영순 2021)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목적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장기 이주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이해되어야 한다(김도혜 2019). 이들의 이동은 하나의 형태로 정형화할 수 없는 유동적 성격이며 이를 변칙적 이동성(Mutant Mobilitie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Allon et al. 2008).³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유학생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수는 자비유학생이며 상당수가 학비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교육부 2025) 경제적 자립이 유학 생활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생계형 유학생의 등장은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비용 부담의 개인화라는 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Walker 1997; Weber et al. 2024). 유학이 엘리트 계층의 특권적 이동에서 벗어나 점차 대중화되면서 유학생 개인에게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강화되었다(Johnstone 2006; Woodhall 1992). 그 결과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며 생존을 모색하는 유학생이 증가하게 되었다(Gargano 2008).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이동의 방향과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서구권으로

3 변칙적 이동성은 전통적인 학업 중심 유학과 달리 경제적 필요라는 구조적 제약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자발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동 형태를 의미한다(King and Raghuram 2013). 또한 학업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수행되며 단기적 생존 전략과 장기적 이주 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Macrandar 2017). 이는 생계형 유학생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의 이동이 주로 수직적 이동이었다면 아시아 내 이동과 한국으로의 유학은 문화적·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평적 이동(Horizontal Mobility)으로 설명된다(Teichler 2009). King과 Raghuram(2013)은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이동자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 가족 상황, 취업 기회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주를 결정하는 자발적 이주자(Voluntary Migrant)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Macrander(2017) 역시 유학생의 이동이 장기적 생존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로 지향형 유학(Pathway Migration)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Kim과 Cho(2022)의 공모적 이동성(Complicit Mobility) 개념은 이러한 이동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송출국·수용국 정부의 이해관계, 대학의 재정적 필요, 유학 브로커 산업이 얽힌 지정학적 권력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유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수용국의 제도적 조건과도 결합하여 나타난다.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구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박소진 2013). 이민경(2012)은 지방대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동기와 이동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지방대를 선택하는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이러한 선택은 차선책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노동 기회의 접근성, 향후 수도권 이동을 위한 거점 확보 등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계형 유학생의 생존 전략은 개인 역량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이들을 둘러싼 이주 인프라(Migration Infrastructure)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Xiang과 Lindquist(2014)는 이주 인프라를 이동을 촉진하고 조건 짓는 상업적·규제적·사회적·기술적 차원의 체계적 연결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 정책, 지방 노동시장의 제약, 지방대의 유학생 의존 구조 등이 생계형 유학생의 노동 불안정성과 비공식 노동 참여를 조건 짓는 이주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민경·곽윤경 2023).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동료 이주 네트워크가 생계형 유학생의 핵심적 생존 자원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생계형 유학생은 학생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사이의 긴

장을 경험한다. 임석준(2010)은 부산 지역 중국 유학생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경계에서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모순을 동시에 경험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중 정체성의 경험은 단순한 역할 갈등을 넘어 주체성의 문제와 연결되며 유학생의 경험을 단일한 범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층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민경 2022; 강현주 2024).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학 생활 적응, 문화 충격, 한국어 학습 경험 등에 집중하며 유학생의 경제적 조건이나 노동 경험은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이선미·김영순 2021). 2010년대 이후 유학과 이주 노동의 중첩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바트챙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 2020; 박소진 2013; 이민경 2012). 그러나 지방대 어학연수 단계에서 형성되는 초기 유학 경험, 학업과 노동 병행의 구체적 양상,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실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대 어학연수 과정에 재학 중인 생계형 유학생들이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존 전략을 형성하며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경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협상해 가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충청남도 Y 지역의 한 지방대 어학연수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과정을 거쳐 학위과정에 진학한 유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등 아시아 출신으로 20~30대이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생계형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최소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지방대 어학연수 과정을 경험한 후 학위과정 진학 또는 대도시로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초기 유학 단계에 놓여 있다.

Y 지역은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

고 있다. 이에 Y 지역 단일 지역 연구는 범위의 제한이 아니라 생계형 유학의 구조적 맥락이 집약된 전형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다 (Flyvbjerg 2006).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 (Purposeful Sampling)을 적용하고 이후 참여자 추천을 통해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확장하였다(Patton 2014). 선정 기준은 D-4 비자로 Y 지역 지방대 어학연수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재학 시점 또는 어학연수 기간 중 노동을 병행한 생계형 유학생, 한국 거주 기간 최소 1년 이상인 참여자이다.

본 연구에서 어학연수 단계의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생계형 유학의 생존 전략이 최초로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학연수 단계는 학사 지도나 생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언어적 장벽, 비자 제약, 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취약한 구간이다(바트첵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 2020). 이러한 초기 경험은 이후 학위과정 진학, 거주지 이동, 장기 체류 등 유학생의 교육 이주 경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학연수 과정 수료 후 일부 유학생은 Y 지역에 잔류하고 일부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 과정은 초기 어학연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학연수 단계를 분석하는 것은 생계형 유학생의 생존 전략 형성과 이후의 이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자료 수집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예비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어학연수 과정 강사로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며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사전 단계에서는 예비 면담을 통해 심층면담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참여자별로 최소 3회 이상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학업, 노동, 일상생활 경험을 탐구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Kvale and Brinkmann 2009) 유학 동기, 학업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일상생활, 지역 이동 경험,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회 면담 시간은 60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참여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한국어·영어 또는 통

역을 혼용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 후 전사하였다.

보조 방법으로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적용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면담 자료로 활용하였다.⁴ 본 연구에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것은 한국어 표현이 제한적인 어학연수생의 일상 경험에 언어적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참여자가 선택한 사진이 비공식 노동 현장이나 생활공간 등 연구자의 질문 범주 밖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 촬영과 설명 과정이 참여자의 경험 성찰과 의미화를 촉진하여 정체성 협상 과정 탐구라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Wang and Burris 1997). 총 10명이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여하여 학업 및 아르바이트 생활을 주제로 한 사진 10장 내외를 제출하였으며 심층면담과 병행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포토보이스는 참여자의 경험을 참여자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 연구가 지향하는 참여자 중심의 경험 탐구라는 연구 목적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자료 분석은 나선형 분석 절차(Creswell and Poth 2016/2021)를 적용하였다. 수집된 면담 전사본과 사진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개방 코딩을 통해 의미 단위를 도출한 후 유사한 경험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적 패턴을 중심으로 ‘학업과 노동의 병행’, ‘대도시로의 이동’, ‘이주 네트워크 활용’, ‘정체성 협상’과 같은 주요 범주가 귀납적으로 도출되었다. 포토보이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Wang과 Burris(1997)가 제안한 SHOWeD 질문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내러티브를 보완하고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질적 타당성은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였다. 신뢰성을 위해 2년 6개월의 장기 현장 참여와 면담·사진 자료의 삼각 검증(Denzin 1978)을 실시하였으며 전이 가능성을 위해 연구 맥락을 두텁게 기술(Geertz 1973)하

4 포토보이스는 Wang과 Burris(1997)가 제안한 참여행동연구 기반의 시각적 방법론으로 이주민·언어 소수자 등 언어로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운 집단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Catalani and Minkler 2010).

였다. 의존 가능성을 위해 분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확인 가능성을 위해 참여자 검토를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익명성 보호를 위해 알파벳 코드를 부여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사 례	성 별	연령	국적	유학과정/면담	유학과정/현재	체류 기간
A	여	20대	몽골	Y 지역 지방대 여학 연수생	수도권 대학원생	2년 1개월
B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2년 1개월
C	여	20대			수도권 대학생	1년 10개월
D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1년 10개월
E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1년 10개월
F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2년 1개월
G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2년 1개월
H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1년 10개월
I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2년 1개월
J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1년 10개월
K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2년 4개월
U	여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1년 4개월
W	여	10대			수도권 대학생	1년 1개월
X	여	20대			수도권 여학연수생	1년 1개월
L	남	20대			수도권 대학원생	2년 1개월
M	남	10대			수도권 대학생	1년 10개월
N	남	10대			수도권 대학생	1년 10개월
O	남	20대	수도권 대학생	1년 10개월		
P	여	20대	베트남	Y 지역 지방대 대학생	2년 3개월	
Q	여	20대	베트남	Y 지역 지방대 대학생	Y 지역 지방대 대학생	4년 10개월
R	여	20대	베트남		Y 지역 지방대 대학생	3년 5개월
S	여	20대	카자흐스탄		Y 지역 지방대 대학생	2년 4개월
Z	남	30대	베트남	Y 지역 지방대	Y 지역 지방대 대학원 졸업 예정	4년 10개월
T	여	20대	중국	대학원생	Y 지역 지방대 대학원 졸업 예정	4년 10개월

4. 생계형 유학생의 생존 전략

1) 경제적 생존 전략: 학업과 노동의 병행

지방에 거주하는 생계형 유학생에게 학업과 유급 노동의 병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이들은 본국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대를 선택하였고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벌어야 하는 이중 부담 속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생계형 유학생 대부분은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다. 한국에서 현행 규정상 어학연수 과정 유학생들은 6개월이 경과하고 한국어 능력 기준에 따라 최소 주 10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법무부 2024). 즉, 입국 초기에는 법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된 신분이며 이는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제도적 장벽이 된다. 이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직접 조달해야 하기에 아르바이트가 허용되기 전부터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찾아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어학연수 6개월 경과 후 일정 수준의 유급 노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생활비와 학비 부담으로 인해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목적지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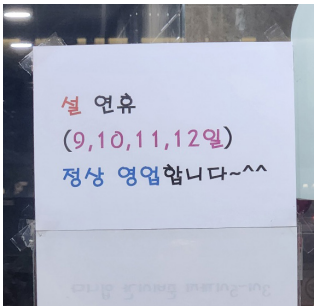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돈.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 1등은 돈.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유학) 생활비가 싸서. 학비 생활비 싸니까. 일도 할 수 있어요(사례 J).

아마도 학교에 가는 날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매일매일 아니고 조금 가니까 그건 좋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직할 때 대학 졸업, 그거는 진짜 필요 있어요. 같이 공부, 같이 일해야 돼요(사례 D).

J와 D의 사례는 생계형 유학생에게 한국 유학이 학위 취득 자체보다 경제 활

동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들은 본국 귀환 이후의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 역시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은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패턴이며 이는 유학생을 복합적 동기를 지닌 자발적 이주자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King and Raghuram 2013).

그러나 어학연수생 신분의 생계형 유학생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입국 초기 단계에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언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은 같은 국적 선배 유학생의 소개를 통해 비공식 채널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단순 노동직·식품 제조·농업 현장 등을 택한다. 노동 현장에서는 번역 앱, 몸짓, 동료의 통역에 의존하며 업무를 익혀 나간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어학연수생 신분이 전제하는 학업 중심의 체류와 실제 생활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이는 이주 초기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적·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비공식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바트챙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 2020).



평일에 학교에 가서 일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서 이거 공부 하면서 이거 일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긴 명절에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해요. 그리고 그 명절에는 다른 회사들 다 쉬어서 우린 더 바빠져요. 사람들이 쉬는 날에 재미있게 놀고 밥 먹고 하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바쁘게 일해서 울어요(사례 L).

그림 1. 네가 웃는 날에 내가 울어요

L은 유학 생활 중 공부보다 일을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어학연수생이라는 제도적 신분과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 사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특히 L의 증언은 어학연수생에게 허용된 취업 시간의 범위

를 일상적으로 초과하는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학연수생이라는 신분은 제도적으로 학생으로 규정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처한 현실은 노동자의 조건에 가깝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대 유학생에게 유급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체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수단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유학 생활은 전통적인 학문 중심 유학이라기보다 경제적 생존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박소진 2013; 임석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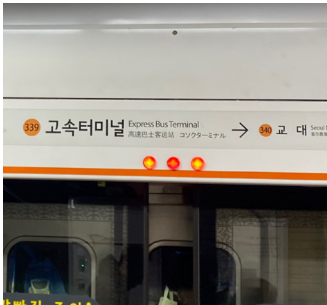
이러한 사례는 전통적인 학문 중심 유학 연구만으로는 생계형 유학생의 이주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의 유학 연구는 주로 학업 성취, 문화 적응, 귀환 후 사회적 자본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생계형 유학생에게 유학은 학문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라 어학연수생이라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활용하여 경제적 생존과 학위 취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이주 전략으로 작동한다. 특히 언어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분 규정의 한계를 넘어 비공식 노동에 참여하면서도 학업을 유지하는 것은 학업, 노동, 이주가 중첩된 복합적 생존 구조이다.

2) 공간적 이동 전략: 지방에서 대도시로

한국 지방대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시작한 유학생들의 목표는 명문 대학 입학이 아니라 ‘대도시로의 이동’이다. 처음부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비자 발급이 어려웠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먼저 대도시의 대학 비자를 받거나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모 직업, 재산,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적으로 이거 보통 학생들은 서울 가고 싶어요. (유학원) 선생님, 제가 서울 가고 싶어요. 서울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너 안 돼요. 다른 선택 없어서 여기로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 안 하고 집에 계시고. 보통 상황이 좋으면 좋은 학교 다닐 수 있고. 돈, 그리고 엄마 아빠는 뭐 해요? 이렇게 나한테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사례 I).

는 지방대 선택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배제의 결과임을 드러낸다. 비자 제도는 가족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유학 기회를 차등화하며 이는 생계형 유학생을 구조적으로 지방으로 밀어낸다(김도혜·최희정 2019; 박소진 2013). 또한 I가 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지방대를 선택해야 했다는 점은 국제 교육 시장의 위계가 개인의 학업 능력이 아니라 경제력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⁵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알바를 찾아봤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로 가고 알바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먼저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하고 여기서부터 알바 생활 시작해요. 일하려고 올 때 아니면 일하고 집에 갈 때 계속 고속터미널에서 갔다 왔다 해서 고속터미널은 한국에 있는 두 번째 집처럼 생각해요 (사례 H).

그림 2. 한국에 있는 두 번째 집

지방대 생계형 유학생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르바이트 기회가 많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H는 지방에서 수업 후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대도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H는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주말마다 대도시로 이동해 일을 하게 되었다. 매주 오가는 고속터미널은 H에게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으며 이는 학생과 노동자의 역할을 오가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H의 이동은 단순한 공간적 선택이 아니라 어학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지방의 구조적 노동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생존 전략의 산물이다. 이러한 주

5 지방대들은 유학원과 협약을 체결하는데(뉴스원코리아 2024) 한국의 일부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지적되었다(중앙일보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원은 유학생들이 유학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한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말 이동은 많은 시간과 비용, 정서적 부담을 동반하지만 지방의 제한된 노동 환경 속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H의 이러한 이동은 지방에서는 학생으로, 대도시에서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보여준다.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Y 지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에 오기 쉬워요. 그리고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이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사례 X).

X의 언급을 통해 생계형 유학생들이 지방대 어학연수 과정을 대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학연수생 신분은 본래 언어 습득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만 생계형 유학생들에게는 대도시 진입과 더 나은 노동 환경으로의 이동을 위한 경우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이민경 2012; 임석준 2010). 이처럼 지방대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대도시로의 공간적 이동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하나의 유학 경로로 작동하였다. 지방대는 유학생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닌 대도시로의 이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김도혜·최희정 2019).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지방대 어학연수 과정이 학업보다 공간적 이동과 경제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경유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대 어학연수는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대도시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활용된다. 이러한 공간적 이동은 개인의 기회주의적 선택이 아니라 어학연수생 신분의 제도적 제약과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가 결합된 구조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생계형 유학은 유급 노동의 의미가 유학과 함께 구성되는 이주 형태임을 드러낸다.

3) 사회적 적응 전략: 이주 네트워크 활용

본국 네트워크는 지방대 유학생에게 한국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유학을 오기 전 가족, 친척 등의 주변 지인을 통해 이주 전 정보와 지원을 받으며 이들은 중요한 사회적 이주 네트워크로 작용한다.⁶

고모가 한국에서 11~12년 동안 살았어요. (현재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사촌 언니들 많이 있어요. (몽골에서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서 나도 가야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가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사례 H).

제 남자 친구 여기(한국)에 있어서... (웃음) 남자 친구는 일하는 비자로 왔어요. 4년(뺐어요)(사례 K).

H는 본국에서부터 여러 친척을 통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였다. 한국은 H에게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친숙한 곳이었고 본국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K 역시 남자 친구가 수도권에서 4년째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연쇄 이주의 전형적 패턴이다(Kim et al. 2016). 가족이나 연인이 이미 한국에 정착해 있다는 사실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서적·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⁷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은 입국 초기에 이들은 같은 국적의 선배나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 일자리를 소개 받는다(바트챙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 2020).

또한 본국 네트워크 외에도 한국으로 유학을 온 후 한국 이주 네트워크도 형성된다.⁸ 유학생들은 지방대 어학연수 과정에서 만난 같은 국적의 학생들과 가장 중요한 이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⁹

6 이주 네트워크는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강한 유대'와 공통 문화, 민족성 등의 '약한 유대'로 구분된다(Samers 2010/2013).

7 이러한 현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매개로 이주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주 네트워크의 특징과도 연결된다(김도혜 2019; 이민경 2012).

8 한국 이주 네트워크는 한국 대학에서 만난 같은 국적 유학생들, 대학 관계자들, 대학 외부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말한다.

9 Gomes(2015)는 유학생들이 동일한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된 평행 사회에서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힘든 거 많이 있을 때 잘 도와주고 옆에 있어 주고. 몽골에 고향에서 만나본 적이 없지만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친구처럼 편했어요. 많이 도와준 캐릭터들이라서.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에게 히어로처럼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내 친구들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선택했어요(사례 H).

그림 3. 한국에서 만난 히어로, 고향 친구들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였지만 같은 시기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지방 유학을 오면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H는 Y 지역 대학에서 만난 본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 어학당 친구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히어로’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를 넘어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노동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 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 현장 적응을 돕는 실질적 생존 자원으로 기능한다. 특히 어학연수 단계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동료 유학생의 통역과 경험 공유는 유학 생활 및 낯선 노동 환경에 적응하는 중요한 연결망으로 작용한다.

지방대의 작은 유학생 커뮤니티는 대도시보다 오히려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좁은 지역에 거주하며 잦은 교류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며 이들은 학업적 경쟁자가 아닌 적응 과정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동반자가 된다. 어학연수 과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조건 아래 놓인 이들은 취업 규정의 제약, 한국어 장벽, 지방의 제한된 노동 환경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면서 네트워크의 결속을 강화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학연수 과정 이후에도 지속되며 지방대 유학생들의 생존 전략을 구체화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주 네트워크가 생계형 유학생에게 단순한 사회적 지지를 넘어 제도적 제약 속에서 경제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

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어학연수생 신분인 유학생들에게 이러한 네트워크는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공식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낮은 노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생계형 유학이 개인의 고립된 생존 실천이 아니라 이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이루어지는 집합적 적응 과정임을 시사한다.

4) 정체성 유지 전략: 학생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협상

생계형 유학생들은 학생과 노동자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모색하며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 나간다. 한국 지방대 유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대우를 경험하는 반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어학연수생 신분은 합법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호막이지만 동시에 취업 활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으로도 작용한다. 이들은 어학연수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규정을 초과하는 노동을 감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중간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학생 신분은 이들에게 일정한 안정감과 특권을 제공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인에 향한 혐오적 시선과 차별적 대우에 노출된다(Korea JoongAng Daily 2023).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서 인사할 때도 학생이라고 인사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학생 아니고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라고 많이 해요(사례 F).

F는 학생이라고 인사하며 유학생 신분을 밝혔지만 상대방에게 노동자로 인식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¹⁰ 이는 어학연수생 신분이 제도적으로는 학생으로 규정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경제적 이주자로 인식되는 간극을

10 유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식되며 불평등한 대우를 경험한다(Dos Santos 2020).

보여준다. 대학에서는 학생으로 환영받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경제적 이주자로 규정된다. 생계형 유학생들은 학업보다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 길지만 노동자 이기보다 학생으로 보이길 원한다. 또한 생계형 유학생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노동자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비자 없죠. 우리보다 좀 힘든 사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학생이에요) 괜찮아요. 대학생이니까 (비자가 있어요)(사례 N).

N은 노동자보다 학생이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며 학생 신분이 제공하는 상대적 안정성과 특권을 언급하였다. 이는 어학연수생 신분이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생계형 유학생들은 유학생으로서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생계형 유학생들이 학생 신분을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N이 노동자를 ‘우리보다 힘든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내면화된 위계 의식을 드러내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유학생 집단에도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임석준 2010).

제가 항상 좀 무서운 건 계속 알바해서 돈 벌기가 좀 좋아하고, 학교 다니는 거 싫어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런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사례 J).



우리 집 길옆에서 찍었던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항상 바라봐요. 근데 나는 해바라기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변 친구들이 돈이 많이 벌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도 막 자주 드렸는데 나는 아직 못해서 서운하고 슬펐어요. 나는 당장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공부에 집중해야 하나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해바라기처럼 튼튼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례 Q).

그림 4. 내 인생은 해바라기였으면 좋겠다

J와 Q는 학업과 노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J는 아르바이트에 익숙해질수록 학업 의지가 약해질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Q는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 압박과 학업 집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어학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조건과 생계를 위해 규정을 초과하는 노동을 감행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정체성 혼란이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조절하며 생존하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 다니는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학생,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학생과) 아르바이트생. 그 사이에 지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사례 G).

G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중간 상태를 인지하게 되었다. 자신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니며 그 사이에서 혼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학연수생 신분이 전제하는 학업 중심의 체류와 생계를 위해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정체성 수준에서 체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대 생계형 유학생들은 경제적 압박으로 완전한 학생이 될 수

없고 동시에 체류를 위해 학생 신분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노동자도 될 수 없다. 결국 이들은 학업과 노동의 경계선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한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생계형 유학생의 정체성 혼란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어학연수생 신분이 내포하는 제도적 제약과 실제 노동 조건 사이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학업 중심의 체류와 생계를 위한 노동 현실 사이의 간극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된다. 이는 생계형 유학생이 단순한 학업 목적의 이주자가 아니라 학생과 노동자의 경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협상하며 살아가는 이주 주체임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대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생계형 유학생들의 생존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대 유학생들은 전통적인 학위 중심의 엘리트 유학과는 다른 네 가지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경제적 생존 전략으로서 학업과 노동의 병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생존 수단이다. 유학생들은 법적 근로 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공간적 이동 전략으로서 지방대는 대도시 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되는 단계적 이동 공간이다. 지방대는 경제적 제약으로 선택된 경유지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대도시로의 이동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셋째, 사회적 적응 전략으로서 이주 네트워크는 본국의 기존 네트워크와 한국에서 새롭게 구축된 이주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방대에서 형성된 같은 국적의 이주 네트워크는 협력과 상호 지지 관계로 발전하여 핵심적 사회적 자본이 된다.

넷째, 정체성 유지 전략으로 학생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중적 정체성 사이의 지속적인 협상 과정이 나타난다. 이들은 경제적 존재로서 유동적 정체성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교육 정책 차원에서 생계형 유학생의 현실을 반영한 안정적 학업 환경과 어학연수생의 실질적 노동 조건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어학연수생 취업 규정에 따르면 입국 후 6개월간 취업이 전면 금지되며, 이후에도 허가받은 업종에서의 시간제 취업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조달해야 하는 생계형 유학생에게 경제적 공백이자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입국 초기 6개월간 취업 금지 규정의 재검토, 업종 제한 완화, 허용 시간 확대 등 어학연수생의 실질적 노동 조건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 및 지방대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단기적 경유지 모델에서 장기적 정착 지원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대 유학생 정책은 주로 유학생 유치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유학생들은 제한된 노동 기회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방대와 지역사회는 지역 내 생활 환경, 노동 기회,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함께 고려한 정착 지원 정책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와 유학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공생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문적 기여 차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유학생 연구가 학업 성취와 문화 적응에 집중해 온 한계를 지적하고 생계형 유학을 학업, 노동, 이주가 중첩된 교육 이주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생계형 유학생을 제도적 제약과 노동시장 조건 사이에서 복합적 이주 전략을 구사하는 능동적인 이주 주체로 정립함으로써 기존 연구 프레임의 확장에 이론적으로 기여한다.

넷째, 방법론적 기여 차원에서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라는 참여적 연구 방법이 언어적 제약이 있는 생계형 유학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데 유효한 접근임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설문조사나 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유학생의 일상적 생존 경험과 정서적 맥락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학생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화에 기여한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지방대 유학생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학을 포함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유학생 현상은 개인의 적응 문제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제 교육 이주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유학 경험의 한 양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방대 진학, 대도시 이동, 노동 선택, 네트워크 형성, 정체성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유학 경험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유학생 연구는 유학생을 정책의 수혜자나 관리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분석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생계형 유학을 학업과 노동이 결합된 복합적 교육 이주 과정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교신: 정혜민(한국외국어대학교 코레아노폰 연구센터 연구원·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강의 전담교수)

Correspondence: Hyemin Jung(Researcher, Center for Koreanophon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Visiting Professor, Talmage College of Convergence and General Education, Hannam University)(bdesign21@naver.com)

2026.01.15 접수, 2026.01.22 심사, 2026.05.11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현주, 2024, 외국인 유학생의 정체성 연구에 대한 소고, *돈암어문학*, 46, 275-301.
- 고민경, 2022,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지역과 지리*, 28(4), 474-488.
- 고민경·곽윤경, 2023, 국내 아시아 출신 유학생-노동자의 이주 인프라에 의한 불안정성 경험과 불안계급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6(1), 1-15.
- 교육부, 2025,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
- 국가통계포털(KOSIS), 2023,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
- 국가통계포털(KOSIS), 202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
- 김도혜, 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39-68.
- 김도혜·최희정, 2019, 한국 유학 선택과정과 초국적 연결망: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생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2(3), 127-164.

- 김도혜·최희정, 2021, 지방대학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결정과 주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79-106.
- 김명광·이윤주, 2023, 외국인 정주 체류를 위한 이동 경로에 대한 고찰: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관점에서, *다문화콘텐츠연구*, (44), 75-110.
- 김세경, 2018, 외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인간관계의 매개효과 및 체류기간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42(2), 127-149.
- 김태은, 202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Study Korea 300K Project'에 대한 소고, *문화와융합*, 45(12), 945-956.
- 뉴데일리경제, 2018.09.20, 대학가 10만명 '미충원' 공포...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한계, 외국인 유학생 14만명 '사상 최대' 무리한 경쟁·학위 남발 등 우려.
- 뉴스원코리아, 2024.08.21, 전주기전대-베트남 킨사 유학원 '유학생 유치 활성화' 협약.
- 바트창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 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25-52.
- 박소진, 2013, 한국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6(1), 191-234.
- 박혜란·남은영, 2024,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외국인 유학생 실태 연구,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9(3), 59-76.
- 법무부, 2024,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 <https://www.moj.go.kr>.
- 안영진·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1(3), 476-491.
- 오예진, 202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KCUE Higher Education Issue*, 1-8.
- 이민경, 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177-201.
- 이선미·김영순,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 25-60.
- 이예지, 2021, 유학 후 외국인의 국내 취업 전략 연구: 시간제 불법 취업과 가족재생산,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43-85.
- 임석준, 2010, 외국인 노동자인가 유학생인가?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책임, *21세기정치학회보*, 20(3), 53-77.
- 정혜민, 2025, 한국 지방대 유학생의 교육 이주에 관한 연구: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23.08.17, "한국어 3급은 유치원 수준인데"...'유학생 30만' 관리 어찌나.
- 한경비즈니스, 2024.10.07, 딜레마에 빠진 한국 대학...유학생 없으면 재정 구멍[외국인 300만

시대③].

- 한국경제, 2024.01.30, 한국어·영어 못해도 “무조건 오라”...외국학생이 99%인 지방대.
- Allon, F. et al., 2008, Mutant mobilities: Backpacker tourism in ‘global’ Sydney. *Mobilities*, 3(1), 73-94.
- Catalani, C. and M. Minkler, 2010, Photovoi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health and public health. *Health education & Behavior*, 37(3), 424-451.
- Creswell, J. W. and C. N. Poth,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홍식 외 옮김, 2021, 학지사.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State): McGraw-Hill.
- Dos Santos, L. M., 2020, The challenging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neo-racism perspective.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12B), 8102-8109.
- Flyvbjerg, B.,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219-245.
- Gargano, T., 2008, *Grounded identities, transient lives: The emergence of student voic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Geertz, C., 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Basic Books*.
- Glass, C. R. and N. I. Cruz, 2023, Moving towards multipolarity: Shifts in the core-periphery structure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and world rankings (2000-2019). *Higher Education*, 85(2), 415-435.
- Gomes, C., 2015, Negotiating everyday life in Australia: Unpacking the parallel society inhabited by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their social networks and entertainment media use.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515-536.
- Gürüz, K., 2011, *High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Revised and updated second edi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ohnstone, D. B., 2006, *Financing higher education: Cost-sharin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Vol. 3). Brill.
- Kim, S. and Y. Cho, 2022, Complicit mobility: Southeast Asian students in Korean Studies and their inter-Asia knowledge migrations.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13.

- Kim, Y. S. et al., 2016, Transnational family network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lated policy implications. *GSPR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9, 90-100.
- King, R. and P. Raghuram, 2013, International student migration: Mapping the field and new research agenda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2), 127-137.
- Korea JoongAng Daily, 2023.04.11,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t alone in tackl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 Kvale, S. and S. Brinkmann, 2009,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Sage.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Macrander, A., 2017, Fractal inequality: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global and regional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12(2), 243-268.
- Patton, M. Q., 2014,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Sage.
- Samers, M., 2010, *Migration* (1st ed.), Routledge, 이주, 이영민 옮김, 2013, 푸른길.
- Schofer, E. and J. W. Meyer, 2005, The worldwid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6), 898-920.
- Teichler, U., 2009,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European experienc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0, 93-106.
- Walker, P., 1997, *The Commodification of British Highe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Oxford Brookes University.
- Wang, C. C. and M. A. Burris,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78.
- Waters, J. L., 2012, Geographies of international education: Mobilities and the reproduction of social (dis) advantage. *Geography compass*, 6(3), 123-136.
- Weber, T. et al., 2024, International students as sources of income? Moving beyond the neoliberal framing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8(4), 526-545.
- Woodhall, M., 1992, Changing sources and patterns of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A review of international trends. *Higher education in Europe*, 17(1), 141-149.
- Xiang, B. and Lindquist, J., 2014, Migration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1_suppl), 122-148.

Survival Strategies of Livelihood-Oriented International Students Balancing Study and Work at Local Universities in Korea

Hyemin Ju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urvival strategies of livelihood-oriented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a local university in Chungcheongnam-do, Korea. It examines their settlement experiences, part-time work practices, identity perceptions, and awareness of how they are socially perceiv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hotovoice, and analyzed using a spiraling qualitative analysis procedure. The findings show that participants strategically balance study and work, engage in stepwise mobility from local regions to metropolitan areas, and utilize migration networks. They also make continuous effor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social prejudice and maintain their identities as students. These findings reconceptualize livelihood-oriented international students as active cultural agents rather than merely economic actors, and offer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tronger support systems for this population.

Keywords Livelihood-oriented International Students, Local Universities, Educational Migration, Survival Strategies, Migration Networks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enter for Koreanophone Studies, Researcher-Hannam University, Talmage College of Convergence and General Education, Visiting Professor, bdesign21@naver.com